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Rel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dolescents'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by Adolescents' Gend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석 사 김 수 희**

교 수 박 성 연***

Interdisciplinary programs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

Master : Kim, Su-Hee

Professor : Park, Seong-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dolescents' attachment toward parents and peers, and adolescents' self-esteem. The differences i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s' attachment and self-esteem as a function of parent and adolescent gender are also examined. Participants were 405 high school students (Mage = 16.3, SD = 0.71) who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parenting behavior,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Results show that girls perceived a higher maternal behavioral control and peer attachment, whereas boys perceived a high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peer attachment and parenting differed depending on the adolescent's gender. Peer attachment was the only variable to predict boys' self-esteem, but mothers' behavioral control is also important to predict girls' self-esteem. Th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s' attachment toward parents and peers in predicting an adolescent's positive self-esteem.

▲주요어(Key Words) : 행동적 통제행동(behavior control parenting), 심리적 통제행동 (psychological control parenting), 부모애착(parent attachment), 또래애착(peer attachment), 자아존중감(self-esteem)

I. 서 론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발달적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인 한편,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학업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부모, 또래, 교사와 같은 주변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힘든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자살이 2006년 1.8명에서 2007년에는 2.5명으로 증가하였고, 10대 사망 원인의 2위(2007년 기준)가 자살이라는 보고(통계청, 2009)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완전히 상실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삶을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 저 자 : 김수희 (E-mail : elf1123@hanmail.net)

*** 교신저자 : 박성연 (E-mail : psy@ewha.ac.kr)

포기해버리는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하게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Coopersmith, 1967)로서 자아를 수용하는 태도이며,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Rosenberg, 1986).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며, 성취동기가 높은 경향이 있고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반을 이루게 되는(홍성훈, 2002)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하거나 불안해하며, 심리적 부적응 및 비행 등에 쉽게 빠져드는 등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높다(이숙 등, 2000). 같은 맥락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고,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있으며, 성취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효과적인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높은 긴장이 유발되고, 문제해결 능력이 낮았다(심수정, 2003). 결국 Harter(1983)가 지적하였듯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개인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는 일은 아동발달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Harter(1983)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개인 및 주위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평가나 이들과의 경험 등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가까운 주변인들로는 일반적으로 부모, 또래, 교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모든 관계의 첫 출발인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사회적 관계의 기초와 사물에 대한 태도, 습관, 가치관 등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영향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 자신의 가치감에 대한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주인자, 2006).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지지적 양육,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의 3가지 차원이 행동발달과 밀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ber et al., 2005). 지지적 양육은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부모로부터 수용되고 승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하는 부모의 행동을 뜻한다(Thomas et al., 1974). 또한 행동적 통제는 부모가 청소년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준수 등을 감독, 관리하는 것(Barber, 1996)으로 보상, 처벌, 감독과 같은 훈육 전략을 통해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Walling et al., 2007). 한편, 심리적 통제는 애정 철회, 죄의식 등의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개인적 영역이나 청소년의 사고, 자기표현, 감정, 부모에 대한 애착 등의 심리적 영역에 지나친 영향력을 발휘하고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Barber, 1996).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제적 양육행동 대신 통제를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한 이러한 양육행동의 분류(Barber, 1996)는 특히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로 혼란을 경험하는 청소년기

에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경향이 높다(Collins et al., 1995)는 점에서 보다 적절한 것일 수 있다. 국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지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한다(Dekovic & Meeus, 1997; Laible et al., 2004; Parker & Benson, 2004). 그러나 Bean(2003)에 의하면, 지지적인 행동은 아프리카계 미국 청소년의 경우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었으나 유럽계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는 관련이 없었다. 반면에 행동적 통제는 유럽계 미국 청소년의 경우만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관련을 나타내,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지지적 양육행동이나 행동적 통제와는 달리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einberg, 2001).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다. 즉 부모의 애정과 관심, 지원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으며(김희수, 2005; 박명선, 2003; 홍성훈, 2002), 심리적인 통제행동(주인자, 2006)이나, 통제적, 권위주의적 양육(윤지은·최미경, 2004; 홍성훈, 2002)은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 반면에 행동적 통제와 유사한 개념인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기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김은정, 2006).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부모 외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과 자녀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행동적 통제는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하고(김희수, 2004; Bowlby, 1982; Kems et al., 2001)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Barbe et al., 2005) 또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이주희, 2003). 반면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에 대한 불안정애착과 관련이 있고(채진선, 2007; Barber, 1996; Walling et al., 2007), 부정적인 또래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된다(황보영란 등, 1998). 또한 노경선 등(2003)에 의하면, 부모의 애정적, 합리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편안하게 생각하도록 하여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덜 갖게 하는 반면에, 부모로 부터 학대, 과잉간섭, 방치, 비밀관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을 받은 청소년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며 거부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또래에 대한 애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도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 기초가 된다. Bowlby(1982)에 의하면, 영아기에 애착대상에 대한 내적작업모형(internal working model)이 형성되고, 이러한 내적모형은 전 생애적으로 지속되어 모든 연령에 걸쳐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원형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타인을 신뢰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되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가진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높고(오송희, 1999; McCormick & Kennedy, 1994) 정서적으로 평온하고 적응력이 높으나(정정숙, 1994; Ryan & Lynch, 1989),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된 자녀는 부모를 배척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았다(Ryan & Lynch, 1989). 그러나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박행목 등, 2002; 양정화, 2002) 애착이 아동기 뿐 아니라 전 생애적으로 지속된다(Bowlby, 1982)는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 뿐 아니라 가정 밖에서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 청소년기에는 또래에 대한 애착 역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행동을 형성하고, 서로 사회화의 중요한 매개자로서의 기능을 하며,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 능력을 통하여 자신감을 발달시키게 된다(Perceli et al., 1974). 이러한 자신감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므로, 또래와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나 또래에 대한 애착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또래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긍정적일 때 전반적인 자아평가나 사회적인 자아평가가 높게 나타났고(심수정, 2003; 조혜진, 2006; Dekovic & Meeus, 1997), 만족스럽고 조화로운 또래관계를 가졌을 때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다(오송희, 1999; Arnsden & Greenberg, 1987; Berndt, 1996; Hartup & Sancilio, 1986; Laible et al., 2004).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에 대한 애착,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인이며,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에 대한 애착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김희수, 2005; 박명선, 2003; 소미강, 2008; 윤지은·최미경, 2004; 주인자, 2006),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오송희, 1999),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양원경, 1999; 조혜진, 2006) 등 각각 변인들의 관계는 보고되었지만, 이러한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와 또래의 영향력이 모두 중요한 시기(주은지, 2007)이며, 아버지의 양육이 청소년 발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부각되고 있어(Dekovic & Meeus, 1997) 부모 모두의 양육행동과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아동발달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성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친밀감이나 합리적 양육(주인자, 2006), 부모의 감독(노경선 등, 2003)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반면에 남자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과잉간섭이나 과잉기대를 받으며(노경선

등, 2003),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한다(Barber, 1996). 또한 청소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애정, 감독의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지각하며(소미강, 2008), 남자 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한다(박성연 등, 2008).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도 성차를 나타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이 높았고(신재은, 1999; 채진선, 2007),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오송희, 1999) 주로 동성 간의 부모-자녀관계가 이성 간의 부모-자녀관계보다 애착이 더 높았다(채진선, 2007).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신재은, 1999; Laible et al., 2004)이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있어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보고(오송희, 1999; Laible et al., 2004)도 있어 연구마다 불일치한 결과를 보인다. 또래에 대한 애착 역시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또래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도금혜, 2008; 오송희, 1999; Laible et al., 2004)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애착은 청소년의 성이나 부모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행동요인에 따라서 또는 청소년 및 부모의 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윤지은·최미경, 2004; 이숙 등, 2000). 또한 남녀 청소년 모두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는 보고(박명선, 2003)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수용적 태도만이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김희수, 2005)가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도 아동의 성이나 부모의 성에 따라 다르게 보고된다. 예를 들어 Laible 등(2004)은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여자 청소년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나, 이미리(2005)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평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버지와의 애착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오송희, 1999; Hoffman et al., 1988)가 있는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LeCroy, 1988)도 있다.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는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Laible et al., 2004), 오송희(1999)는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또래애착이 더 높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또래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연령과 성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성 또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3개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405명(남: 167명; 여: 23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6.3세($SD=.71$)이었으며, 청소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각각 48.1세($SD=3.72$), 45.3세($SD=3.64$)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이 보고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지지적 양육,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측정된다(Barber et al., 2005). 지지적 양육은 Schaefer(1965)가 개발한 CRPBI(the Child Report of Parent Behavior Index)를 Barber 등(2005)이 개정한 지지적 행동에 관한 총 10개 문항(부, 모 각각 10문항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자주 미소 지으신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슬퍼할 때 힘을 북돋아주신다' 등을 들 수 있다.

행동적 통제는 Barber 등(2005)의 행동적 통제에 관한 총 5개 문항(부, 모 각각 5문항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밤에 어디 가는지 알고 있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방과후 주로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심리적 통제는 Schaefer(1965) CRPBI(the Child Report of Parent Behavior Index)에 기초하여 Barber(1996)가 개발한 PCS-YSR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을 총 8개 문항(부, 모 각각 8문항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느끼는 기분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가족들의 문제가 내 탓이라고 하신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양육행동척도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행동의 각 차원의 문항 내적일치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지지적 양육행동은 Cronbach $\alpha=.90, .90$, 행동적 통제는 Cronbach $\alpha=.80, .82$, 그리고 심리적 통제는 Cronbach $\alpha=.81, .82$ 로 나타났다.

2)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에 기초하여 Raja 등(1992)이 개정한 IPPA-개정본(IPPA-R)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각각의 원척도는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가지 차원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외에 관한 문항을 역코딩한 후 합산한 평균값을 애착점수로 사용하였다.

총 12문항(부, 모 각각 12문항씩)으로 구성된 청소년 보고용 부모애착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문항 예로는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힘든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존중해주신다'를 들 수 있다.

또래애착 척도 역시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보고용으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애착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 예로는 '나는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보고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척도의 문항 내적일치도는 각각 Cronbach $\alpha=.84, .82$ 였으며, 또래애착 척도는 .82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1967)의 SEI(Self-Esteem Inventory)를 전귀연과 장도현(1984)이 번안한 문항 중에서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에 관한 2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 보고용으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식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한 문항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alpha=.77$ 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3개 고등학교의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500부 중 452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일부 자료가 미비한 경우를 제외한 총 405부가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SPSS 15.0을 사용하여 성별에 따른 집단간 및 집단내의 차이 검증을 위한 반복측정 다변량분석(Repeated MANOVA)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 예측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의 성 및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전체 연구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듯이 남녀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든 차원의 양육행동 점수는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았으나 그 중 특히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평균 3.22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평균 1.98로 가장 낮았다. 한편 애착 점수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평균 3.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또래애착(M=3.08), 아버지와의 애착(M=2.9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문제 1을 위해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애착 점수의 차이가 부모의 성 및 청소년의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집단간 변인으로, 부모의 성을 집단 내 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MANOVA를 실시하였다(<표 2-5> 참조). 이 과정에서 각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의 성과 청소년의 성의

반복측정 MANOVA의 기본가정이 충족되는지를 Box's M 검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지지적,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행동 모두에서 변량-공변량 행렬이 동질적이며(각각 Box's M=2.61, F=.87, p>.05; Box's M=.54, F=.18, p>.05; Box's M=1.56, F=.52, p>.05), 종속변수들 간의 상호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각각 $\chi^2=80.16, p<.001; \chi^2=135.09, p<.001; \chi^2=92.01, p<.001$),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지지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성과 청소년의 성의 반복측정 MANOVA를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부모의 지지적 양육에 대해서는 부모 성의 주효과가 나타난 한편, 청소년 성의 주효과나 청소년 성과 부모 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의 지지적 양육에 대한 지각에서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지지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표 1> 참조).

한편, 행동적 통제에 대한 부모의 성과 청소년의 성의 반복측정 MANOVA 분석 결과, 지지적 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성의 주효과는 없었으나, 부모 성의 주효과가 나타났다(<표 3> 참조). 즉, 부모의 행동적 통제에 대한 지각에서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부모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행동적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표 1> 참조). 또한 부모의 행동적 통제에 대한 청소년 성과 부모 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에 대한 지각에서는 남자 청소년(M=2.64)과 여자 청소년(M=2.65)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에 대해서는 남녀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어 여자 청소년(M=3.20)이

<표 1> 연구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

(N=405)

	남자		여자		전체	
	M	SD	M	SD	M	SD
부의 양육행동						
지 지	2.92	0.54	2.94	0.60	2.93	0.58
행동적 통제	2.64	0.65	2.65	0.66	2.65	0.65
심리적 통제	2.05	0.53	1.92	0.54	1.98	0.54
모의 양육행동						
지 지	3.17	0.50	3.25	0.51	3.22	0.50
행동적 통제	3.04	0.59	3.20	0.58	3.14	0.59
심리적 통제	2.09	0.56	1.96	0.53	2.01	0.55
애착						
아버지 애착	3.00	0.42	2.92	0.50	2.95	0.47
어머니 애착	3.15	0.41	3.21	0.41	3.19	0.41
또래 애착	3.01	0.41	3.14	0.39	3.08	0.40
자아존중감						
	2.68	0.30	2.65	0.29	2.67	0.29

<표 2> 부모의 성과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지지적 양육의 다변량분석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청소년의 성	남 자 여 자	.49	1	.49	1.19
부모의 성	부 모	15.24	1	15.24	87.08***
청소년 성×부모 성		.24	1	.24	1.34

*** $p < .001$

<표 3> 부모의 성과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의 다변량분석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청소년의 성	남 자 여 자	1.45	1	1.45	2.41
부모의 성	부 모	44.79	1	44.79	243.71***
청소년 성×부모 성		1.04	1	1.04	5.68*

* $p < .05$, *** $p < .001$

<표 4> 부모의 성과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의 다변량분석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청소년의 성	남 자 여 자	3.12	1	3.12	7.41**
부모의 성	부 모	.29	1	.29	1.82
청소년 성×부모 성		.00	1	.00	.01

** $p < .01$

<표 5> 부모의 성과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애착의 다변량분석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청소년의 성	남 자 여 자	.01	1	.01	.03
부모의 성	부 모	9.46	1	9.46	90.90***
청소년 성×부모 성		.86	1	.86	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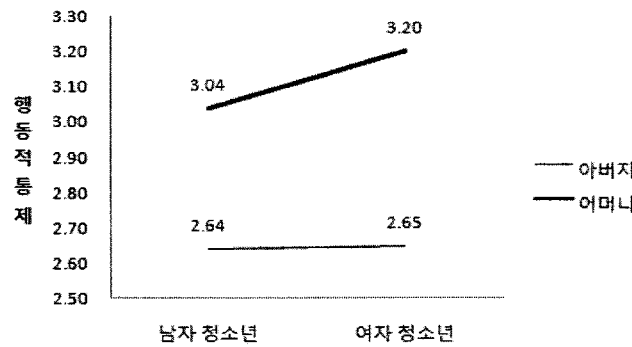
** $p < .01$, *** $p < .001$

남자 청소년($M=3.04$)보다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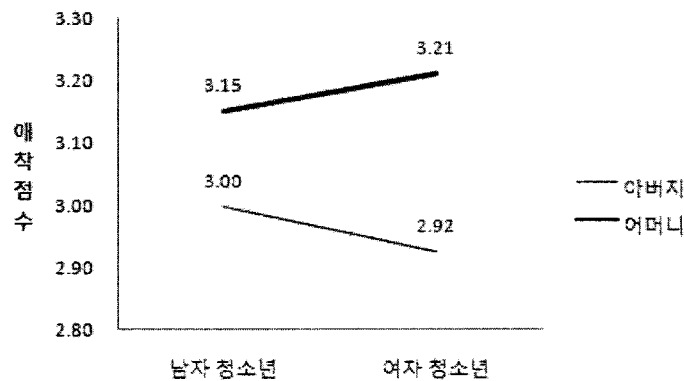
심리적 통제에 대한 부모의 성과 청소년의 성의 반복측정 MANOVA 분석결과, 청소년의 성의 주효과만 나타나,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표 1> 참조). 그러나 부모의 성의 주효과나 청소년의 성과 부모 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모애착에 대한 부모의 성과 청소년의 성의 반복측정 MANOVA에서 기본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Box's M 검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변량-공변량 행렬

이 동질적이며(Box's $M=7.51$, $F=2.49$, $p > .05$), 종속변수들 간의 상호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103.86$, $p < .001$). 이에 따른 MANOVA 분석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청소년 성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의 성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성과 부모의 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에서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부모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남녀 청소년 모두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표 1> 참조). 그러나 <그림 2>에서 보듯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자 청소년($M=3.0$)이



<그림 1> 부모의 행동적 통제에 대한 남자 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지각의 차이



<그림 2> 부모에 대한 애착지각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지각의 차이

여자 청소년($M=2.92$) 보다 다소 높게 지각하였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여자 청소년($M=3.21$)이 남자 청소년($M=3.15$)보다 다소 높게 지각하였다.

한편,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또래애착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3.182, df=403, p<.01$)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또래에 대한 애착이 더 높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남녀 청소년 각각을 대상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6>, <표 7> 참조). 그 결과 첫째, 남녀 청소년 모두 부모의 지지적 양육 및 행동적 통제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부모의 지지적 양육 및 행동적 통제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았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적인 관련이 있어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았다. 둘째, 남녀 청소년 모두 부모의 지지적 양육과 행동적 통제는 또래에 대한 애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가 자녀에게 지지를 많이 하거나 행동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은 높았다. 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또래에 대한 애착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은 낮았다. 셋째, 남녀 청소년 모두 부모에 대한 애착은 또래에 대한 애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도 높았다. 넷째, 부모의 지지적 양육 및 행동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부모가 지지적 양육을 하거나 행동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대한 애착 역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 부모나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한편 Pearson 상관분석(<표 6>, <표 7> 참조)에서 남녀 청소년 모두 아버지의 지지적 양육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간(남 $r=.756, p<.001$; 여 $r=.844, p<.001$)에, 그리고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간(남 $r=.792, p<.001$; 여 $r=.769, p<.001$)에 각각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표 6> 남자 청소년의 전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9
아버지 양육									
1. 지지	-								
2. 행동적 통제	.525 ***	-							
3. 심리적 통제	-.444 ***	-.154 *	-						
어머니 양육									
4. 지지	.389 ***	.356 ***	-.320 ***	-					
5. 행동적 통제	.299 ***	.549 ***	-.241 **	.466 ***	-				
6. 심리적 통제	-.182 *	-.249 **	.496 ***	-.511 ***	-.241 **				
애착									
7. 아버지 애착	.756 ***	.429 ***	-.637 ***	.427 ***	.251 **	-.377 ***	-		
8. 어머니 애착	.309 ***	.313 ***	-.369 ***	.792 ***	.455 ***	-.611 ***	.488 ***	-	
9. 또래 애착	.370 ***	.327 ***	-.352 ***	.425 ***	.417 ***	-.316 ***	.493 ***	.475 ***	-
10. 자아존중감	.257 **	.261 **	-.249 **	.463 ***	.271 ***	-.324 ***	.368 ***	.439 ***	.513 ***

* $p<.05$, ** $p<.01$, *** $p<.001$

<표 7> 여자 청소년의 전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9
아버지 양육									
1. 지지	-								
2. 행동적 통제	.502 ***	-							
3. 심리적 통제	-.409 ***	-.137 *	-						
어머니 양육									
4. 지지	.416 ***	.345 ***	-.261 ***	-					
5. 행동적 통제	.281 ***	.510 ***	-.248 ***	.524 ***	-				
6. 심리적 통제	-.193 **	-.227 ***	.421 ***	-.419 ***	-.244 ***	-			
애착									
7. 아버지 애착	.844 ***	.451 ***	-.542 ***	.451 ***	.297 ***	-.300 ***	-		
8. 어머니 애착	.350 ***	.319 ***	-.231 ***	.769 ***	.511 ***	-.556 ***	.451 ***	-	
9. 또래 애착	.303 ***	.204 **	-.137 *	.417 ***	.301 ***	-.290 ***	.303 ***	.376 ***	-
10. 자아존중감	.304 ***	.188 **	-.268 ***	.313 ***	.311 ***	-.305 ***	.314 ***	.326 ***	.317 ***

* $p<.05$, ** $p<.01$, *** $p<.001$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양육행동과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 지지적 양육은 제외하였다. 즉 부모의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행동과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행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값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1.36-2.64,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24-2.24까지 분포되어 있어 다중공선성 기준인 $VIF < 10$ 에 근거하여 불 때(양병화, 2006)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를 투입하였으며, 두번째 단계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 어머니에 대한 애착, 또래에 대한 애착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 1에서 투입한 양육행동 중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beta = -.22, p < .05$), 설명력은 16% ($R^2 = .16$)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고($\beta = -.22, p < .05 \rightarrow \beta = -.08, p > .05$), 추가로 투입된 애착 중에서 또래애착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7, p < .001$). 이때 부모의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 부모애착, 또래애착 변인들은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32% ($R^2 = .32$) 설명하였으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두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발생한 설명력의 변화량은 16% ($\Delta R^2 = .16$)이었다. 따라서 부모의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모두 투입한 모델 2에서 보듯이,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또래와의 애착($\beta = .37, p < .001$)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델 1에서 투입한 양육행동 중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beta = .23, p < .0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beta = -.19, p < .01$)가 유의하였

<표 8>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또래애착의 위계적 회귀분석

	자아존중감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β	β	β	β
아버지 양육행동				
행동적 통제	.12	.05	.01	-.05
심리적 통제	-.09	.04	-.13	-.07
어머니 양육행동				
행동적 통제	.13	-.02	.23**	.18*
심리적 통제	-.22*	-.08	-.19**	-.14
아버지 애착		.07		.14
어머니 애착		.19		.03
또래 애착		.37***		.17*
R^2	.16	.32	.16	.21
ΔR^2		.16		.05
F	7.72***	10.77***	11.58***	8.92***
(df)	(4,162)	(7,159)	(4,233)	(7,230)

* $p < .05$, ** $p < .01$, *** $p < .001$

으며 설명력 16% ($R^2 = .16$)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 애착을 투입하였을 때는 모델 1에서 유의하였던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는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미하였으나 ($\beta = .23, p < .01 \rightarrow \beta = .18, p < .0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유의하지 않았고 ($\beta = .19, p < .01 \rightarrow \beta = .14, p > .05$), 추가로 투입된 애착중에서 또래애착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7, p < .05$).

이때 부모의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 부모애착, 또래애착 변인들은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21% ($R^2 = .21$) 설명하였으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두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발생한 설명력의 변화량은 5% ($\Delta R^2 = .05$)이었다. 부모의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모두 투입한 모델 2에서 보듯이,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beta = .18, p < .05$)이었고, 그 다음으로 또래와의 애착 ($\beta = .17, p <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 청소년 모두 또래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한편,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임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애착, 또래애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성 또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이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남녀 청소년 405명으로 평균 연령은 16.3세였으며, 본 연구자료는 청소년이 보고한 질문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측정 다변량분석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과 행동적 통제는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지지적 양육과 행동적 통제를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과 행동적 통제에서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는 본 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부모와 친밀하다고 지각한 연구결과(노경선 등, 2003; 주인자, 2006)나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부모의 감독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보고(노경선 등, 2003)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과 행동적 통제 정도를 다르게 지각한다는 본 결과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과 감독, 행동적 통제를 더 많이 한다는 소미강(2008)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버지 비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상호작용이 빈번하여 감정교류를 많이 하기(김현철 · 김은정, 2007; Youniss & Smollar, 1985)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청소년 자녀의 상황과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감독, 행동적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행동적 통제의 경우는 청소년의 성 및 부모 성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성에 따른 지각의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여자 청소년에게 행동적 통제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는, 연구대상 청소년의 연령으로 보아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심리적 통제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만 나타나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주인자, 2006; Barber, 1996)와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과 다르게 아버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결과(박성연 등, 2008)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딸보다 아들에게 성취, 독립, 개인의 의무, 경쟁, 감정의 억제 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손낙주·최보가, 1996; Frankel & Rollins, 1983)이 있어 딸보다 아들을 더 엄격하게 훈육하는데(Gager et al., 1999)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성 유형화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대를 잇는 자녀로서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박성연 등, 2008)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경우는 부모의 성에 따른 지각의 차이가 나타나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더 높다고 지각하였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성에 따라 부모에 대한 애착을 다르게 지각한다는 본 결과는, 남녀 청소년들이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보다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김현철과 김은정(2007)과 Youniss와 Smollar(1985)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지지적 양육을 많이 한다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김현철·김은정, 2007; Youniss & Smollar, 1985) 아버지와의 애착보다는 어머니와 보다 긴밀한 애착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애착에 대한 부모의 성과 청소년의 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딸보다 아들이 높았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딸이 아들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이 같은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은 성이 다른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보다 더 높다는 본 결과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높게 지각하고(신재은, 1999; 채진선, 2007),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높게 지각한다는 보고(오송희, 1999)와 유사하다. 따라서 아버지와 청소년 아들, 어머니와 청소년 딸의 관계는 다른 성의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더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또래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또래에 대한 애착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또래에 대한 애착이 더 높았다는 결과들(도금혜, 2008; 오송희, 1999; Laible et al., 200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들

이 남학생들에 비해 또래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더욱 크고 단짝 친구들과 깊은 애착관계를 맺는데(도금혜, 2008)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에서는 청소년의 성에 따른 지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보다 높다는 결과(박명선, 2003; 심수정, 2003; 양원경, 1999; 이숙 등, 2000; 최미경·도현심, 2000)나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보다 높다는 결과(주인자, 2006)와는 상반되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김희화(1998)의 연구와는 일치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성에 따른 차이를 연구한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성 이외의 다른 변인인 청소년의 연령(McCarthy & Hoge, 1982)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김경연, 1987) 등이 복합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가정된다. 자아존중감의 성차가 없다는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이나 계층을 포함하여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함으로써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또래 애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일반적, 사회적 영역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는 결과(심수정, 2003; 조혜진, 2006; Armsden & Greenberg, 1987; Berndt, 1996; Dekovic & Meeus, 1997; Hartup & Sancilio, 1986; Laible et al., 2004)와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중 또래애착이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오송희(1999)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들이 또래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이 자아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였고, 그 다음이 또래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가 가장 영향력이 큰 예측변인이라는 본 결과는, 부모가 감독을 많이 할수록 남녀 청소년은 긍정적인 자아평가를 한다는 결과(이미리, 2005)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평소에 자주 상호작용하는 어머니로부터 모니터링 즉, 행동적 통제를 받는 것은 생활의 안정감을 갖게 하고 이는 곧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또래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본 결과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 여자 청소년들도 또래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또래가 안전한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하여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Laible et al., 2004) 이 역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

을 예측하는데 남녀 청소년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 또래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래 간의 의사소통이나 신뢰감, 감정교류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여자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자녀의 일상적 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감독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서울 지역의 3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청소년 전반의 결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을 청소년의 보고 방식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같은 보고자로 인한 자료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예측해주는 변인을 다룬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포함한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적인 측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측정하고 남녀 청소년을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도 여전히 가정 특히, 부모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나 지도방향을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정(2006). 초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역할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33-61.
 김현철 · 김은정(2007).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수(200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행동과 애착안정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2(2), 501-518.
 김희수(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경선 · 허묘연 · 홍현주(2003). 청소년기 애착 유형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2(1), 116-123.
 도금혜(2008).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1(3), 133-150.
 박명선(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 및 가정

특성변인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 · 이은경 · 송주현 · Soenens, B.(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박행목 · 문승태 · 양정화(2002). 부모와의 애착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5(3), 113-125.
 소미강(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낙주 · 최보가(199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기 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245-257.
 신재은(1999). 청소년의 애착 및 우정관계와 또래 괴롭힘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수정(2003).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병화(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양원경(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정화(2002).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송희(1999).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지은 · 최미경(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37-251.
 이미리(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이숙 · 우희정 · 김미란(2000).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3(1), 64-72.
 이주희(2003).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또래수용, 문제행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귀연 · 장도현(1984). 아동의 성역할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정숙(1994).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혜진(2006).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우울, 불안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 주은지(2007). 미국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01-112.
- 주인자(2006).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진선(2007).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청소년기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 · 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5.
- 통계청(2009). 2009 청소년 통계. www.nso.go.kr
- 홍성흔(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보영란 · 박경란 · 전영자(1998). 아동의 인성 및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6, 193-215.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ar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151.
- Bean, R. A., Bush, K. R., McKenry P. C. & Wilson, S. M.(2003).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5), 523-541.
- Berndt, T. J.(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6-365.
- Bowlby, J.(1982).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 Aetiology and psychopathology in the light of attachment theory. *Brit. J. Psychiatry*, 130, 201-210.
- Collins, W. A., Harris, M. L. & Susman, M. H.(1995).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J.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and Company.
- Dekovic M, Meeus W.(1997).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 163-176.
- Frankel, M. & Rollins, H.(1983). Does mother know best? Mothers and fathers interacting with preschool sons and daugh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694-702.
- Gager, C. T., Cooney, T. M. & Call, K. T.(1999). The effects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time use on teenagers' household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982-994.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N.Y. : John Wiley.
- Hartup, W. W. & Sancilio, M. F.(1986). Children's friendships. In E. Social behavior in autism, N.Y.: Plenum Press, 61-80.
- Hoffman, M. A., Ushhpiz, V. & Levy-Shiff, R.(1988).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7, 307-316.
- Kerns, K. A., Aspelmeier, J. E., Gentzler, A. L. & Grabill, C. M.(2001). Parent-child attachment and monitoring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69-81.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LeCroy, C.(1988). Parent-adolescent intimacy : Impact on adolescent functioning. *Adolescence*, 23, 137-147.
- McCarthy, J. D. & Hoge, D. R.(1982). Analysis of age effect in longitudinal studies of adolescent self-esteem.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72-379.
- McCormick, C. B. & Kennedy, J. H.(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Parker, J. S. & Benson, M. J.(2004) Parent-adolescent relations and adolescent functioning: self-esteem, substance abuse,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9(155), 519-530.
- Perceli, L. P., Berwick, P. T. & Beigal, A.(1974). The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self-concept and anxiety. *Arch Gen Psychiatry*, 31, 502-504.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5.

- Rosenberg, M.(1986). *Self-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J.Suls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elf (Vol.3)*, Hillsdale, NJ: Erlbaum.
- Ryan, R. M. & Lynch, J. H.(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 340-356.
- Schaefer, E. S.(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2-557.
- Steinberg, L.(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 1-19.
- Thomas, D. L., Gecas, V., Weigert, A. & Rooney, E. (1974). *Family socialization and the adolescent*. Lexington Books.
- Walling, B. R., Mills, R. S. L. & Freeman, W. S.(2007). Parenting cognitions associated with the use of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 642-659.
- Youniss, J. & Smollar J.(1985).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접수일 : 2009년 07월 15일

심사일 : 2009년 07월 28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9월 13일